

화가 마쓰모토 모리마사(松本盛昌) 연구

-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중심으로 -

박상현*

koreaswiss@hanmail.net

미네자키 도모코**

minetomoko@gmail.com

<目次>

- | | |
|------|------|
| 1. 가 | 4. 가 |
| 2. ‘ | 5. |
| 3. | |

主題語: 애국백인일수(100 Patriotic Poems), 그림엽서(postcard), 인물(character), 마쓰모토 모리마사(Mastumoto Morimasa), 묘사(depiction)

1. 들어가며

1942년 11월 20일에 ‘내지(内地) 일본에서 새로운 백인일수(百人一首)가 발표됐다. ‘애국백인일수(愛國百人一首)’가 그것이다. 이것은 대동아전쟁 곧 태평양전쟁이란 시국 상황하에서 일본 문학보국회(1)의 기획과 대정익찬회(大政翼贊會)(2)의 후원으로 편찬됐다. 이전까지 ‘백인일수’라고 하면 ‘오구라백인일수(小倉百人一首)’였다. 그런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와카(和歌)에는 사랑을 읊은 노래가 많았다. ‘오구라백인일수’는 당시 시국과 국책에 맞지 않았던 것이다.(3)

‘애국백인일수’에는 나라(奈良)시대부터 에도(江戸)시대에 걸쳐 창작된 와카 100수(首)가 수록되어 있다. 주로 충군애국(忠君愛國)을 주제로 한 것이었다. 선정 위원들은 정부 당국을 의식하면서 와카를 선별했는데, 충군의 순정, 국체(国体) 예찬, 경신(敬神)과 조상 숭배의 정신

*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 홍익대학교 교양학부 조교수, 교신저자

1) 태평양전쟁 개전 직후 내각정보국과 대정익찬회의 주도로 만들어졌다. 문학자의 문학 활동을 통제하기 위한 단체였다.

2) 1940년에 설립된 미디어 통제 및 정보선전기관이다.

3) 일본 패전 후 ‘오구라백인일수’는 부활됐고, ‘애국백인일수’는 잊혀졌다. 시대가 바뀐 것이다.

등과 같은 일본 정신을 중시했다. 선정 기준을 정리하면 대체로 아래와 같다.

- 와카 형식은 단가(短歌)로 한정함
- 『만엽집(万葉集)』이후 에도 막부 말기까지의 노래(歌) 가운데서 뽑을 것
- 애국 정신을 읊었다고 해도 되도록 건강하고 명랑하고 적극성이 있는 노래를 뽑을 것
- 작자를 알 수 있는 노래만 선택할 것
- 『오구라 백인일수』의 노래는 제외할 것
- ‘애국’의 의미는 광의의 의미로도 협의의 의미로도 해석 가능하지만, 일정 정도 넓게 해석해서 채택할 것. 또한 국토애를 노래한 것도 넣을 것⁴⁾

일본문학보국회는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을 위해 1943년 3월에 ‘애국백인일수’ 해설서인 『정본애국백인일수해설(定本愛國百人一首解説)』을 매일신문사에서 단행본으로 출간했다. 그리고 새로 선정된 ‘애국백인일수’는 단행본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낭독, 강연회, 전람회, 서도전(書道展), 점자화, 카드놀이인 가루타(カルタ), 그림엽서 등 당시 활용 가능한 시각 및 청각 미디어 그리고 교구(教具) 등을 통해 신민(臣民)들에게 널리 퍼져나갔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학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주목하여 첫째, 화가인 마쓰모토 모리마사(松本盛昌)가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인물을 어떻게 시각화했는지를 검토한다.⁵⁾ 둘째,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어떤 사람이며, 그가 왜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의 화가로 선택됐는지도 살펴본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학계를 통틀어서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대해, 또한 마쓰모토 모리마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첫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⁶⁾

그럼 먼저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2.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

요시노 다카오(吉野孝雄)는 ‘내지’에서 시도된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4) 日本文学報国会 編(1943)『定本愛國百人一首解説』毎日新聞社, pp.7-18

5) 와카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동시에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근대 매체라는 측면에서 ‘그림엽서’는 단행본이나 라디오 낭독, 강연회 등과 비교해서 탁월한 홍보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6) 이와 같은 연구가 한일 학계에서 기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 중에는 그의 존재와 그가 그린 그림엽서의 존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도 포함될 것이다.

자세히 언급했다. 미술계의 대가나 각계의 명사가 ‘애국백인일수’의 휘호를 발표했고, 신주쿠(新宿)에 있던 이세탄(伊勢丹) 백화점에서는 ‘애국백인일수’ 휘호전을 개최한 후, 그 판매금을 충령현창회(忠靈顯彰會)라는 애국단체에 기부했다. 또한 사이토 모키치(斎藤茂吉)의 제안으로 당시의 국민학교인 소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애국백인일수’의 와키를 합창시켰고, 동경의 가부키좌(歌舞伎座)에서는 사토미 톤(里見淳)·후나하시 세이치(船橋聖一) 원작 가극인 ‘애국백인일수’를 상연했다. 그리고 카드놀이인 가루타를 활용하기도 했다⁷⁾. 이처럼 ‘내지’에서는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을 위해 예술가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을 위해 활동했던 예술가 중에서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삽화(挿畫) 화가인 마쓰모토 모리마사다. 그는 1943년에 다음과 같은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세상에 내놓았다.⁸⁾ 우선 <이미지 1>을 살펴보자.⁹⁾



<이미지 1> 1943년 애국사(愛国社) 발행(A), 8매¹⁰⁾

7) 요시노 다카오 저·노상래 역(2012)『문학보국회의 시대』영남대학교출판부, p.125

8) 일제강점기에 나온 그림엽서를 포함한 사진그림엽서는 최근에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활발하게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신동규 교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 그룹은 주목할 만하다. 그들은 2018년 7월에 발간된『일본문화연구』(제67집, 동아시아일본학회)에서 일제강점기 사진그림엽서 관련 기획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연구 그룹은 본고가 다루는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대해서는 고찰하지 않았다. 이 연구 그룹의 주된 관심사가 일본인이 당시의 조선과 조선인을 어떻게 표상 및 시각화했는가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9) 본고에서 예시하는 모든 이미지는 연구자 소장본이다. 다만 <이미지 1>은 아래 사이트에서 차용했다. <https://search.yahoo.co.jp/image/search?rkf=2&ei=UTF-8&gdr=1&p=%E6%84%B9%E5%9B%BD%E7%99%BE%E4%BA%BA%E4%B8%80%E9%A6%96%E3%81%88%E3%81%AF%E3%81%8C%E3%81%8D#mode%3Ddetail%26index%3D0%26st%3D0>(검색일: 2019.11.7.)

10) 그림엽서의 실제 크기는 가로 9cm×세로 14.2cm다.

<이미지 1>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적혀 있는 와카를 시계 방향으로 알기 쉽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스노키 마사쓰라(楠木正行, 남북조시대 무사)
 살아 돌아오지 못하기에 여기에 이름을 새겨놓고 출정한다¹¹⁾
 이마마쓰리베노 요소후(今奉部与曾布, 나라시대 농민 출신 병사)
 오늘부터는 뒤돌아보지 않고 천황의 병사로 출정하는 나다¹²⁾
 나카토미노 스케하루(中臣祐春, 가마쿠라시대 가인)
 서해에서 다가오는 파도(몽고군)도 조심해라! 야마토(일본)는 신이 지키시는 나라다¹³⁾
 쓰다 아이노스케(津田愛之助, 에도시대 청년 무사)
 천황의 방패가 되어 죽는 목숨이라고 생각하니 내 목숨이라는 것도 가볍게 느껴진다¹⁴⁾
 오노노 오유(小野老, 나라시대 귀족)
 도읍지 나라는 만개한 벚꽃과 같이 지금 최절정으로 번영하고 있구나¹⁵⁾
 아마노이누카이노 오키마루(海犬養岡麻呂, 나라시대 가인)
 일본 신민인 나는 삶의 보람이 있습니다 천지가 번영하는 이때에 태어난 것을 생각하면¹⁶⁾
 아베노 이라쓰메(安倍女郎, 나라시대 농민 출신 병사의 아내)
 당신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신과 함께할 테니까요¹⁷⁾
 후지와라노 요시쓰네(藤原良経, 가마쿠라시대 가인)
 먼 옛날 누가 이런 아름다운 벚꽃을 심어서 요시노산을 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산으로 만들었던
 말인가¹⁸⁾

이들 와카에는 무사(혹은 병사)의 충성심(, ,), 신국(神国) 일본의 번영(, ,), 일본 신민으로서의 자긍심(), 병사(防人)의 안녕을 기원하는 아내()가 각각 읊어져 있다.

한편 그림엽서 봉투 뒷면에는 그림엽서를 그린 화가와 그림엽서 제작 배경이 명시되어 있다. <이미지 2>를 보자.

11)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동일.

かへらじと かねて思へば 梓弓 なき数に入る 名をぞとむる

12) 今日よりは 顧みなくて 大君の しこの御楯と 出で立つ吾は

13) 西の海 よせくる波も 心せよ 神の守れる やまと島根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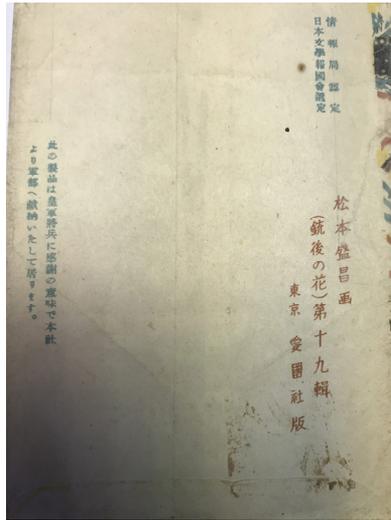
14) 大君の 御楯となりて 捨つる身と 思へば 軽き わが命かな

15) あをによし 寧樂の京師は 咲く花の 薫ふがごとく 今さかりなり

16) 御民吾 生ける験あり 天地の 栄ゆる時に 遇へらく念へば

17) わが背子は 物な念ほし 事しあらば 火にも水にも 吾無けなくに

18) 昔たれ かゝる桜の 花を植ゑて 吉野を春の 山となしけむ



<이미지 2> 봉투 뒷면

그림엽서 오른쪽 중앙에는 ‘松本盛昌 画’라고 쓰여 있다.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그렸다는 것이다.¹⁹⁾ 그리고 왼쪽 중앙에는 “이 그림엽서는 황군 장병에 감사하는 의미로 애국사가 군부에 헌납한다”²⁰⁾고 쓰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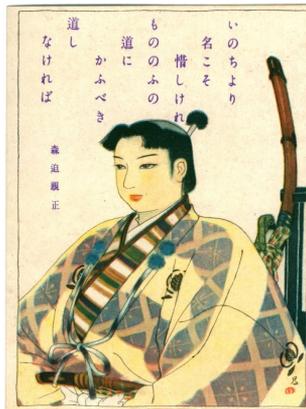
그런데 애국사는 8장으로 한 세트가 된 이 그림엽서 외에도 인물을 묘사한 또 다른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세상에 내놓았다.²¹⁾ <이미지 3>이 그것이다.

19) 그 아래에는 ‘총후의 꽃(銃後の花)’ 제19집이라고도 적혀 있다. 이것으로 이 그림엽서가 ‘총후의 꽃’ 제19집이라는 것과 ‘총후의 꽃’이 시리즈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관견(管見)이지만 지금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현존하는 ‘총후의 꽃’ 시리즈는 이것뿐인 것 같다.

20)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此の製品は皇軍将兵に感謝の意味で本社より軍部へ献納いたして居ります”

21) 이 밖에도 애국사가 발행한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로 8매로 구성된 한 세트가 또 있다. 다만, 여기에는 인물이 묘사되어 있지 않고, 또한 화가도 알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검토하지 않는다. 결국 애국사가 발행한 현존하는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는 총 3종이다.

표지



<이미지 3> 1943년 애국사 발행(B), 7대22)

<이미지 3>의 표지 왼쪽 하단을 보면, ‘松本盛昌 画’라고 명시되어 있다.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그림을 그렸다는 말이다. 그리고 이 그림엽서도 <이미지 1>의 그림엽서와 같이 애국사가 황군 장병에 감사하는 의미로 군부에 헌납됐다고 추정된다.

이 그림엽서에 보이는 와카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쓰모리노 구니타카(津守国貴, 남북조시대 요시노 신사 신관)
- 천황의 안녕을 빌고자 산길을 급히 왔는데 신사 경내에서는 닭이 벌써 새벽을 알리고 있네²³⁾
- 미나모토노 요리마사(源頼政, 헤이안시대 무장)
- 잡목에 섞여 있어서 나뭇가지만 봐서는 벚꽃인지 몰랐는데 봄 되어 꽃 피니 벚꽃이로구나²⁴⁾
- 가노 모로히라(加納諸平, 에도시대 국학자 및 가인)
- 천황을 위해 산화한 충신에게 천하태평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²⁵⁾
- 오나카토미노 스케치카(大中臣輔親, 헤이안시대 귀족 및 가인)
- 사카다에서 수확한 벼를 산처럼 쌓아놓고 천황의 번영을 비는 곡물로 첫 벼이삭을 찢어 바친다²⁶⁾
- 가모노 마부치(賀茂真淵, 에도시대 국학자)
- 논의 수포와 진흙 속에서 벼모를 심고 있는 것은 모두 우리 천황을 위해서²⁷⁾
- 히라노 구니오미(平野国臣, 에도시대 무사)
- 푸른 구름이 하늘 널리 퍼져 있듯이 천황의 위세가 널리 퍼지도록 하고 싶네²⁸⁾
- 모리사코 지카마사(森迫親正, 전국시대 무사)
- 목숨보다 이름이 소용없어지는 것이 아쉬운 것이다. 무사인 나는 목숨 버려서라도 무사도의 길을 걷노라²⁹⁾

<이미지 3>에 보이는 와카에는 천황 안녕 기원(), 어려운 시절에 충신(여기서는 벚꽃의 은유. 인용자)이 보인다는 은유(), 일본 번영(), 천황 번영(, ,), 무사의 충성심()이 각각 나타나 있다.

22) 그림엽서의 실제 크기는 가로 9cm×세로 14.2cm다. 여기서는 지면 관계상 좀 축소해서 제시한다.

23) 한국어 번역은 줄역. 이하, 동일.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같음.

君をいのる 道にいそげば 神垣に はや時つげて 鶏も鳴くなり

24) み山木の その梢とも 見えざりし 桜は花に あらはれにけり

25) 君がため 花と散りにし ますらをに 見せばやと思ふ 御代の春かな

26) 山のごと 坂田の稲を 抜き積みて 君が千歳の 初穂にぞ春く

27) 大御田の 水泡も泥も かきたれてとる や早苗は 我が君の為

28) 青雲の むかふす極 すめらぎの 御稜威かゞやく 御代になしてむ

29) いのちより 名こそ惜しけれ 武士の 道にかふべき 道しなければ

3. 그림엽서에 보이는 인물의 특징

<이미지 1>과 <이미지 3>의 와카에는 무사(혹은 병사)의 충성심, 신국 일본의 번영, 일본 신민으로서의 자긍심, 병사의 안전을 기원하는 아내, 천황 안녕 및 번영 기원, 어려운 시절에 충신이 보인다는 은유 등이 각각 드러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와카를 시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해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

<이미지 1>과 <이미지 3>에 묘사된 남성과 여성은 모두 미남이고 미녀라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남성은 다부지고 믿음직스럽게, 여성은 교양 있고 품위 있게 그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³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여성 묘사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이미지 1>의 에 묘사된 여성은 일본이 미국과 영국에 선전 포고를 했다는 신문 기사를 읽고 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일본 전통 옷인 기모노(着物)를 입고 있지만 쌍꺼풀이 있고 파마(permanent wave)를 한 것 같은 헤어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화양절충(和洋折衷)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쇼와 모던(昭和モダン)풍이다.



<이미지 4> 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

한편 이와 같은 화양절충의 쇼와 모던풍은 앞서 제시했던 <이미지 3>의 표지와 , , 에서도 잘 느껴진다.³¹⁾

30) 교양 있고 품위 있는 여성 이미지는 <이미지 1> 의 ‘신문을 읽고 있는 여성’에서 잘 드러난다.

표지



<이미지 5> 표지와 , ,

또한 <이미지 3>에 묘사된 여성들은 아름다우면서도 고풍적인 느낌도 준다. <이미지 3>의 와 가 압권이다.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 눈과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순종적인 모습, 불그스름한 볼, 빨갛고 작은 입술이 선명하다.

31) 단, 의 여성은 기모노가 아니라 세일러복 같은 옷을 입고 있다.



<이미지 6> 이름답고 고풍적인 여성 ,

호리에 아키킨(堀江あき子)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녀 잡지와 서정화(戰前の少女雑誌と抒情画)」에서 서정화의 특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수심이 느껴지는 큰 눈동자, 결코 큰 소리를 내며 웃을 것 같지 않은 작은 입,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상적인 소녀 그림이 삽화로 그려져 있었다.³²⁾

이와 같은 서정화의 특징은 서정파(抒情派) 화가³³⁾라고 불렸던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애국 백인일수’의 그림엽서에서 형상화했던 여성 인물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4.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선택된 이유

마쓰모토 모리마사³⁴⁾는 대체 어떤 인물이었기에 태평양전쟁이라는 전시(戰時) 시국에서

32)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憂いを帯びた大きな瞳と、決して声をあげて笑うこともないような小さな口、常にうつむきがちな姿が印象的な少女画が添えられた。”

堀江あき子編(2001)『戦後少女ドラマ展：少女雑誌を彩った抒情画と絵物語の世界』(解説書) 弥生美術館, p.10

33) 여기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34) 이미 언급했지만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일본 학계에서도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애국백인일수’의

‘애국백인일수’의 그림엽서에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일까? 이를 살펴볼 수 있는 현존하는 자료는 일본에도 별로 남아 있지 않다.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현존 자료를 검토해보면 대략적인 윤곽은 그려볼 수 있다.

먼저 마쓰모토 모리마사에 대해서다. 그는 1912년 1월 1일 아이치현(愛知県) 마쓰야마(松山)에서 출생하여 1967년 2월 26일, 만 55세의 일기로 영면했다.³⁵⁾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기적으로 가장 빠른 자료는 1949년 2월에 출간된 『아사히클럽(アサヒクラブ)』이라는 잡지를 통해서다. 여기에는 「서정과 화가 고지판(抒情派画家告知板)」이라는 제목하에 서정과 화가들이 소개되어 있고, 화가의 근황도 나와 있다. 이 잡지에 소개된 서정과 화가로는 마쓰모토 모리마사이외에 가토 마사오(加藤まさを), 후키야 고지(露谷虹児), 다쓰미 마사에(辰巳まさ江), 마쓰모토 가쓰지(松本かつち), 나카하라 준이치(中原淳一), 다카바타게 가쇼(高畠華宵), 와타나베 이쿠코(渡辺郁子)가 있다.

「서정과 화가 고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마쓰모토 모리마사의 소개와 근황 그리고 그의 사진이 실려 있다.

병역 검사를 마친 후 부인인 요시코(よし子)와 둘이서 청운의 꿈을 품고 동경으로 왔다. 당시 장남인 히로시(弘 현재 햇수로 13살)는 아직 요시코의 뱃속에 있었다. **부인인 요시코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 소녀 잡지에 팔렸다.(a)** 이것으로 드디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천생 내향적 성격으로 그림 그리는데 속도도 느려서 **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태평양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b)** 2년 반이나 징용과 병역으로 동원됐다.(c) 동경의 나카노(中野)에 있던 집은 전화(戰災)를 입었다. 현재 살고 있는 2평 반 정도의 가건물에서 가족 6명이 살고 있다. 0.25평 정도의 벽장을 화실로 쓰면서 힘든 화가 생활을 보내고 있다. **“내 그림은 다른 화가와 달리 실제 모델을 쓰기에 상당히 사실적입니다.(d)”**라고 말한다.³⁶⁾

그림엽서에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새로운 자료 발굴을 통해 그 사실을 최초로 밝혔다.

35)堀江あき子編(2001) 앞의 책, p.10

36)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강조 표시와 (a) 같은 기호는 인용자. 이하, 같은.

“懲役検査のあと今の夫人よし子さんと二人、青雲の志を抱いて上京、長男の弘君(13)がまだお腹の中にいた頃、**奥さんをモデルに書いた絵が少女雑誌に売れ(a)**、漸く芽が出た。生来の内気と遅筆で**名を知られるに至らぬうちに、戦争で大打撃(b)**。二年半を徴用と兵役に駆り出され(c)、中野の家は戦災。目下の四畳半のバラックに一家六人暮らして、半畳の押入れを画室に苦闘中。「**僕の絵は他人の絵と違ってモデルを使うので相当リアルです(d)**」という。”

伴俊彦編(1949)『アサヒクラブ』朝日出版社, p.14



<이미지 7> 마쓰모토 모리마사³⁷⁾

「서정과 화가 고지판」에는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첫째, 삽화 화가였고 작풍(作風)은 서정과였다. 좀 전에 언급했지만 “부인인 요시코를 모델로 그린 그림이 소녀 잡지에 팔렸다”(a)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삽화 작가로 화가 생활을 시작했다. 그가 삽화 화가로 데뷔한 소녀 잡지는 『소녀의 친구(少女の友)』였다.³⁸⁾ 1937년의 일이다.³⁹⁾ 한편 그는 가토 마사오, 후키야 고지 등과 함께 서정과 화가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때 그들이 그린 ‘서정화’란 어떤 작풍을 말하는 것일까? 호리에 아키코(堀江あき子)는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녀 잡지와 서정화」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소녀 소설은 감정이 풍부한 소녀들의センチ멘탈리즘 일색의 우정 이야기, 가난이나 병마(病魔) 등의 역경에도 다부지게 살아가는 소녀 이야기가 주류였다. 이들 소설에는 수십이 느껴지는 큰 눈동자, 결코 큰 소리를 내며 웃을 것 같지 않은 작은 입, 늘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인상적인 소녀 그림이 삽화로 그려져 있었다. 이와 같은 좀 봉건시대적인 소녀 풍속을 그렸던

37) 이 잡지에 실린 사진에서 그는 39살로 소개된다. 만 나이가 아니라 햇수다.

伴俊彦編(1949) 위의 책, p.14

38) 1908년 2월 창간되어 1955년 6월에 중단된 소녀를 대상으로 한 잡지. 일본 출판 역사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간행된 소녀 잡지였다.

39) 実業之日本社編(2009)『『少女の友』創刊100周年記念号:明治・大正・昭和ベストセクション』実業之日本社, p.319

삽화, 권두화, 표지 그림을 통틀어서 서정화라고 부른다.⁴⁰⁾

둘째, 처음부터 잘 나가는 화가가 아니었다. 천재 화가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생활고를 겪다가 드디어 세상에 알려진 대기만성형 화가였다. 그것은 “화가로서 이름이 알려지기 전에 태평양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b)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는 현재의 중학교에 해당하는 고등소학교(高等小学校) 때 부모를 잃고, 먹고 살기 위해 잡지 『소녀의 친구』에 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한다.⁴¹⁾ 어려서부터 생활고를 겪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때 그린 삽화는 연재소설에 들어가는 그림이었다.⁴²⁾

셋째, 태평양전쟁 때 군인으로 군 생활을 경험했다. 그것은 “2년 반이나 징용과 병역으로 동원됐다”(c)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미에현(三重県)의 이세(伊勢)에서 병역을 시작했고, 이후 규슈(九州) 나가사키현(長崎県)의 사세보(佐世保)에서 해병 대원으로 활동했다. 그리고 이때 그린 그림이 해군성(海軍省)⁴³⁾에 팔렸다.⁴⁴⁾

넷째, 실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부인인 요시코를 모델로 그린 그림(a)”과 “내 그림은 다른 화가와 달리 실제 모델을 쓰기에 상당히 사실적(d)”이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실제 모델을 활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대상을 상당히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무라사키 슈조(村崎修三)도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인물을 묘사할 때 차분하고 고상한 느낌을 주는 서정을 자세하고 세밀하게 잘 그렸다고 지적한다.⁴⁵⁾

마쓰모토 모리마사의 섬세하고 사실적인 작풍에 대해 그의 장남인 마쓰모토 히로시(松本弘)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버지는 실물을 직접 보지 않으면 그릴 수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주 모델 역할을 했습니다. 저도 꽤 모델 노릇을 했습니다. 움직이면 혼났습니다. 저 동급생도 모델이 됐습니다. …… 배경이나 작은 도구 등도 실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컨대 소녀의 머리에 꽂는 리본 하나라

40)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戦前の少女小説は、多感な少女たちのセンチメンタリズムに彩られた友情物語や貧しさや病魔などの逆境に襲われながらも健気に生きる少女の物語が主流であった。これらの小説には憂いを帯びた大きな瞳と、決して声をあげて笑うこともないような小さな口、常にうつむきがちな姿が印象的な少女画が添えられた。このような一種封建的な時代の少女風俗を描いたさし絵や、口絵、表紙絵は総称して抒情画と呼ばれた。”
堀江あき子編(2001) 앞의 책, p.10
41) 堀江あき子編(2001) 위의 책, p.23
42) 村崎修三(2015)『乙女のふろく：明治・大正・昭和の少女雑誌』青幻舎, p.213
43) 해군의 군사 행정을 담당했던 중앙행정기관이다.
44) 堀江あき子編(2001) 앞의 책, p.23
45) 村崎修三(2015) 앞의 책, p.213

도 상상으로는 그리지 못했습니다. 모양의 요철과 구부러진 정도 등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⁴⁶⁾

그런데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왜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의 화가로 선택됐을까?⁴⁷⁾ 앞에서 자세히 살펴봤듯이 충군애국을 읊었다고 하는 ‘애국백인일수’의 성격과 당시의 전시 시국을 고려한다면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선택됐다고는 보기 어렵다. 예컨대 이미 언급했듯이 서정과 화가만 하더라도 마쓰모토 모리마사 이외에 가토 마사오, 후키야 고지, 다쓰미 마사에, 마쓰모토 가쓰지, 나카하라 준이치, 다카바타게 가쇼, 와타나베 이쿠코 등 다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의 화가로 선택됐다고 추정된다.

첫째, 이미 언급했듯이 그는 태평양전쟁 중에 2년 반이나 해병 대원으로 군 생활을 보냈다. 또한 그때 그린 그림이 해군성에 팔리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군인의 심리와 해군성을 포함한 일본 군부가 어떤 그림을 원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제작 연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태평양전쟁기에 다음과 같은 ‘황군위문그림엽서’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⁴⁸⁾ 아래 이미지의 왼쪽 하단에 ‘松本盛昌 画’ 곧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그렸다고 적혀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그가 당시 시국에 잘 맞는 화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⁹⁾

46) 일본어 원문은 다음과 같다.

“父は実物を見ないと描けないたちで、母がよくモデルをつとめていました。僕もかり出されたことがあったなあ。動くと怒られてね。それから僕と同級生なんかも。……背景や小道具なんかも、実物がないとダメでした。例えば少女の頭に飾るリボンひとつにしても、空では描けないのです。模様の出方や曲がり具合など、正確に描くためにはね。”

実業之日本社編(2009) 앞의 책, pp.319-320

47)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제작했던 애국사가 마쓰모토 모리마사에게 그림을 의뢰했다고 추정된다.

48) 하야카와 다다노리(早川タダノリ)는 태평양전쟁기에 ‘위문(慰問)’, ‘황군위문(皇軍慰問)’이라는 이름이 붙은 인쇄물이 다수 나왔다고 지적한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마쓰모토 모리마사의 ‘황군위문그림엽서’이다. 早川タダノリ(2014)『「愛国」の技法』青弓社, p.1

49) 물론 그가 자발적으로 그렸는지, 어쩔 수 없이 그렸는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미지 8> ‘황군위문그림엽서’⁵⁰⁾

둘째, 그는 잡지『소녀의 친구』에서 연재소설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린 경험이 풍부했다.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적절한 ‘그림’을 그리는 데 익숙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이 ‘애국백인일수’에 실린 ‘와카(노래)’에 걸맞은 ‘그림’을 그리는 자로서 마쓰모토 모리마사가 적합했을 것이다.⁵¹⁾

5. 마치며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남성은 다부지고 강인한 미남으로, 여성은 아름다우면서도 고풍적인 미녀로 시각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엽서가 군부에 헌납됐다. 그림엽서의 주요 소비층이 군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그림엽서의 역할은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애국백인일수’에 담겨 있는 충군애국의 일본 정신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것이다. 또한 그림엽서에 묘사된 미녀로 잠시나마

50) 早川タダノリ(2014) 위의 책, p.2

51) ‘애국백인일수’의 와카를 읽고 그에 부합하는 그림을 나중에 그렸는지, 기존에 자신이 그렸던 그림 가운데 ‘애국백인일수’의 노래에 알맞을 것을 골랐는지는 명확히 말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글에서 밝히고 싶다.

병사에게 성적 판타지(fantasy)를 불러일으켜 그들을 위문(慰問)하는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⁵²⁾

둘째,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해군성을 포함하여 당시 군부가 원하는 바를 그려낼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의 군인 경력 그리고 연재소설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린 경험은 ‘애국백인일수’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자로서 그가 적합⁵³⁾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⁵⁴⁾

【參考文獻】

요시노 다카오 저·노상래 역(2012)『문학보국회의 시대』영남대학교출판부, p.125
 愛国社(A, 1943)『愛国百人一首繪葉書』(8枚) 愛国社
 愛国社(B, 1943)『愛国百人一首繪葉書』(7枚) 愛国社
 実業之日本社編(2009)『『少女の友』創刊100周年記念号:明治・大正・昭和ベストセレクション』実業之日本社, p.319
 日本文学報国会 編(1943)『定本愛国百人一首解説』毎日新聞社, pp.7-18
 早川タダノリ(2014)『『愛国』の技法』青弓社, p.2
 伴俊彦編(1949)『アサヒクラブ』朝日出版社, p.14
 堀江あき子編(2001)『戦後少女ドラマ展：少女雑誌を彩った抒情画と絵物語の世界』(解説書)弥生美術館, p.10
 村崎修三(2015)『乙女のふろく：明治・大正・昭和の少女雑誌』青幻舎, p.213
<https://search.yahoo.co.jp/image/search?rkf=2&ei=UTF-8&gdr=1&p=%E6%84%B9%E5%9B%BD%E7%99%BE%E4%BA%BA%E4%B8%80%E9%A6%96%E3%81%88%E3%81%AF%E3%81%8C%E3%81%8D#mode%3Ddetail%26index%3D0%26st%3D0>(검색일: 2019.11.7.)

논문투고일 : 2019년 09월 28일
 심사개시일 : 2019년 10월 15일
 1차 수정일 : 2019년 11월 08일
 2차 수정일 : 2019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11월 18일

52) 이것은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당시 ‘황군위문그림엽서’가 있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분히 추론 가능하다. 다만, 당시 병사들의 반응을 정확히 알아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여 후속 연구에서 살펴보고 싶다.

53) 그가 생활고 때문에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54) 그는 일본 패전 후 마쓰모토 모리마사에서 ‘마쓰모토 마사미(松本昌美)’로 개명했다. 그가 왜 이름을 바꾸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태평양전쟁기에 그렸던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나 ‘황군위문그림엽서’ 작업을 자신도 잊고 싶었고, 타인도 기억해주지 않기를 바랐는지도 모른다.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관한 연구는 이제 막 시작했다. 예컨대 와카와 그림엽서에 그려진 그림과의 관계 등 앞으로 다룰 부분이 적지 않다.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한다.

〈要旨〉

화가 마쓰모토 모리마사 연구

-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중심으로 -

박상현·미네자키 도모코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첫째, ‘애국백인일수’ 그림엽서에 등장하는 남성은 다부지고 강인한 미남으로, 여성은 아름다우면서도 고풍적인 미녀로 시각화 됐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엽서가 군부에 헌납됐다. 그림엽서의 주요 소비층이 군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그림엽서의 역할은 ‘애국백인일수’의 보급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애국백인일수’에 담겨 있는 충군애국의 일본 정신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을 것이다. 또한 그림엽서에 묘사된 미녀로 잠시나마 병사에게 성적 판타지(fantasy)를 불러일으켜 그들을 위문(慰問)하는 역할도 수행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둘째, 마쓰모토 모리마사는 해군성을 포함하여 당시 군부가 원하는 바를 그려낼 수 있는 경험과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특히 그의 군인 경력 그리고 연재소설에 들어가는 삽화를 그린 경험은 ‘애국백인일수’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자로서 그가 적합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Study of painter Matsumoto Morimasa

- Focusing on postcards of 100 Patriotic Poems -

Park, Sang-Hyun · Minezaki, Tomoko

This paper has reviewed the postcards of 100 Patriotic Poems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males in the postcards of 100 Patriotic Poems are described as beautiful and alluring beauty, and women are beautiful and alluring. And these postcards were dedicated to the military. Considering that its main consumer was a soldier, I think that the role of this postcard did not end with the spread of ‘100 Patriotic Poems’. In addition, the Japanese spirit of Patriotism, which is contained in the ‘100 Patriotic Poems’, would have boosted the morale of soldiers. It is also believed that the beauty portrayed in the postcards played a role in bringing sexual fantasy to soldiers and consoling them. Second, Matsumoto Morimasa had the experience and ability to draw what the military wanted, including the navy department. In particular, his military career and experience of drawing into a series of novels tells us that he was suitable as a painter for the ‘100 Patriotic Poems’.